

##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돌아보는 한해, 다짐하는 새해
- ◎ **성탄선물**: 각 공동체에서 준비한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성탄 선물을 이번 주에 발송합니다. 협력한 공동체와 선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선교사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요람**: 내년도 교회 생활 안내책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소, 상호, 전화번호등, 변경된 사항, 올해 요람에 잘못 기재된 부분 등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총회**: 2014년 교회와 선교회를 섬겨갈 각 선교회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가 12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이 선출되기를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협력**: 성탄축하 전야제를 의미있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성도는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조사**: 성전 건축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며 작성하신 설문지를 설문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 **자선음악회**: 탈북자 선교를 위한 제 5회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각 교회 찬양대 찬양). 일시: 11월 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한우리 교회 주관: 오uckland 장로 연합회
- ◎ **알림**: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소식

- ◎ **귀국**: 김승훈, 이진실 집사 가정 유학 마치고 귀국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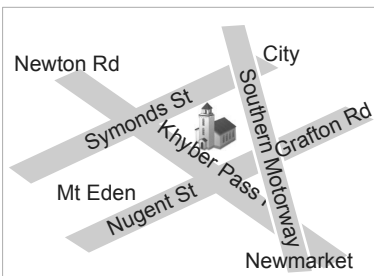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오시는 길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11월 2일 주일 16권 44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 전도 후기

지난 주 토요일 아침(10월 18일), 눈을 뜨자마자 먼저 창문 커튼을 열었습니다. 전도하는 날인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것으로 관측되었기에 혹시나해서 잤습니다. 금방이라도 올음을 터뜨릴 만큼 잔뜩 찌푸리기는 했어도 아직 비는 오지 않았습니. 시간이 되자 교회 사무실로 전도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전도할 장소인 Queen St 로 바로 온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오후부터 내린다고 예보된 비는 어찌 그리 정확한지 한 시간 전부터 빗줄기를 뿌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가 넘어서는 제법 굵은 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장로님과 학생들, 성도들, 모든 교역자들 한 자리에 모여 작은 캔디 봉지에 성경 말씀을 부착한 선물(?)을 들고 일부는 짝을 지어 주변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아오테 아 광장 한 모퉁에서 찬양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말씀 카드가 부착된 캔디를 건네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예 필요없다며 짜증을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행기에 서너살 먹은 아이를 태워 가는 엄마는 자기는 괜찮고 아이에게만 캔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분은 자신은 캔디를 너무 많이 먹어 더 이상 먹으면 안된다고 정중히 사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캔디에만 관심을 보일뿐 성경말씀이 적인 카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 복음이 넘쳐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사람이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전도의 필요성과 함께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비로 인한 전도의 어려움은 기우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전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모든 전도대원들이 오uckland를 축복하는 기도를 끝으로 3시간 가량의 전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전도를 한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할 쑥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는데 앞으로는 더 잘 할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전도를 못해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놀려있던 심령이 확트이며 너무 감동적이었으며 오늘 전도는 저들을 위한 전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전도였다고 간증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한턱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 뿌듯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로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시편 48:1-2  
찬양대  
다함께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87. 요한계시록 21장  
사도신경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철재 집사  
사도행전 26:30-32  
나무십자가 찬양대  
**인생 뜻대로 안 되어도**/이태한목사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이순옥 집사  
하박국 2:14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박찬준 형제

◎ 11월 교회알기

월샷 기도회: 11월 1일(토)  
정책당회: 11월 22일(토)  
새가족 환영회: 11월 29일(토)  
대림절1: 11월 30일(주일)

◎ 11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남영수/조은희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은희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이예찬 형제  
11월 12일 수요: 정혜숙 권사  
11월 12일 애찬: 장연식 집사  
11월 16일 주일: 최광암 집사  
11월 16일 청년부: 박병민 장로

**금주의 기도제목**

1. 복음만이 선포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세상문화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2. 기말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지혜가 풍성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3. 고난과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11월 새벽기도회 본문**

11월 7일: 요한계시록 9:13-21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11월 14일: 요한계시록 14:1-13 어린양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11월 21일: 요한계시록 18:1-8 내 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11월 28일: 요한계시록 21:9-27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NIBC 한국 본부 선교사 심재우 김신애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하게 방콕 사역을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기 직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정리하려는데 눈병과 두드러기가 생겨서 고생했고, 출국 이틀전에는 자동차 사고까지 났습니다.

제가 정차 해 있는데 오토바이가 제 차로 달려와서 부딪쳤는데 감사하게도 양쪽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만 해도, 이리다가 한국에 제 날짜에 못 돌아가는게 아닌가 했었지만, 영광교회의 형제들이 도와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아프고, 문제가 생길까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마지막에 겸손한 마음으로 태국인들을 볼 수 있고, 또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태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Faith Mission으로 섬기는 선교사로서 2015년부터 NIBCM 국제선교회 본부사역으로 4년 한턴으로 섬기게 되며, 재우 형제는 동시에 뿔볼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영어과정으로 M.div 과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한 턴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태국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도록
2. 가족 모두가 한국생활에 빨리 익숙해지고, 잘 적응하며, 건강하도록
3. 살롬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4. 하나님께서 재우 형제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신대원 준비 (성경,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